



통찰력

코브레 & 김, 개인을 단속한 수 년만의 해외재산관리국 사건을 **Wall Street Journal** 지면에서 분석

2020 08 13

최근 미국 재무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에 대한 제재 위반 단속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. 이는 앞으로 새로운 동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코브레 & 김의 Beau Barnes 변호사는 Wall Street Journal 지면에서 전했습니다.

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배치되었던 전직 미 육군 직원에 대하여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 제재 목록에 오른 마약상과의 금지된 거래 혐의가 제기된 본 사건은 해당 개인과 해외재산관리국의 미화 5천 달러 합의로 일단락되었지만,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는 미화 3천 6백 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.

Beau Barnes 변호사는 해외재산관리국이 10여년 전에는 개인 단속에 중점을 두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. “개인 위반자가 다시금 해외재산관리국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으며, 기존에는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제재 위반에 따르는 개인 책임을 회피한 사람도 재차 해외재산관리국의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”

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